

문화전당 등 16건 1629억 반영, 흑산도 공항 177억으로 증액

광주·전남 SOC 국비예산 대폭 증액...어디에 얼마나 늘었나

내년 광주·전남도의 국회 예산 심의는 모처럼 여야의 협치 속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숙원사업인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첫 국비 지원이 이뤄진 만큼, 계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첫 삽'...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애초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라이더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은 자율 주행차,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본연구비 3억원,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은 차세대 VR시장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

광주, 경전선 전철화 첫 삽...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국민연방 캐스팅 보트 역할...지역현안 예산 효과적 확보

의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20억원 등 13건 25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SOC사업은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60억원이 증액되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주 진입로가 확보되게 됐으며,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45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45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개설 1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

에도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76억원 등 16건 1629억원이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 지역공약 반영된 사업도 예산 지원이 확정됐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553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42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9억원 등이 반영됐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신규 사업 44건 반영=전남도 국비 예산 확보의 최대 성과는 신규 사업의 무더기 반영이다. 계속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은 내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표적 신규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이다. 전남도가 35억원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 국회에서 25억원이 반영돼 수출 전진기지 구축의 디딤돌을 닦았다.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10억원), 여수 석유화학 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18억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29억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원) 등도 사업비가 새로 반영됐다.

SOC 분야에서 신규 사업은 벌교~주암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5억원), 신안 압해~송곡 간 국도 시설개량(5억원), 화순 동면~순천 송곡 간 국도 시설개량(5억

■ 광주·전남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국회 반영	최종액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20,304	48	48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458	10	10
광주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	300	20	20
차세대 ICT융합 및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50	10	10
원도심재생뉴딜사업	800	100	100

■ 광주·전남 증액사업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국회 반영	최종액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440	2.9	5.8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 중소기업지원	170	5	20.2
전환경차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3,030	101	288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900	75.5	552.5
광주솔로몬 로파크 신축	239	2.8	7.3

□ 광주

사업명	총 사업비	국회 반영	최종액
벌교~주암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3,535	5	5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00	25	25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253	18	18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327	5.5	5.5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150	10	10

□ 전남

사업명	총 사업비	국회 반영	최종액
남해안 철도 건설	13,886	678	2,677
광주~완도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15,346	1,513	1,968
호남고속도로 2단계 초기 완공	24,731	422	576
백신클러스터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836	36	145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영산강 3지구)	10,254	339	42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등 지도부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풍성한 사과



김은영
'그림 생각'

(206) 결실

머칠 전 사실상 첫눈이 내리면서 늦 가을은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 같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들이 아직 매달려 있고, 아파트 입구 1톤 트럭행상에 가득 쌓인 사과더미를 보며 변변히 누리지 못했던 늦가을의 끝자락을 혼자서 붙들고 있었는데 말이다. 과일 중에서 유독 사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과는 행상 리어카에서든 세잔의 그림에서든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다.

서양화가 윤병락(1968 ~)의 작품 '가을 향기'(2012년 작)는 나무 상자에



윤병락 작 '가을 향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실재감을 주고 동시에 그 사과를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잡을 수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미술사에서는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이들이 화가들을 꼽는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그림의 역할을 사진이 대신 하자 화가들이 그 전과 다르게 그림을 그려야했다는 것이다. 화가의 작품 역시 사과를 극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림이지만 사진이 제공할 수 없는 유년의 기억과 시각을 감각적으로 연결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포리부장·미술사박사>

일자리·최저임금... 文대통령 대선공약 대거 반영

치매 국가책임제 기반 이행 초고소득세 증세안도 관철

국회가 6일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3당이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대립한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아동수당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이른바 '9대 쟁점'은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현장공무원 일자리 증가분(4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3조7000억원), 기초연금(9조8000억원), 아동수당(1조1000억원) 등 모두 18조원을 '5대 핵심 서민 살리기 예산'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쟁점 예산을 두고 국

민이 동의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여야 간 마라톤협상 끝에 일부 예산은 삭감됐지만, 대부분은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내년엔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1만5000명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결국 9475명을 충원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보완하는 예산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내년엔 2조9707억원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했고, 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이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액 2200억원이 감액됐지만, 큰 틀에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도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두 사업의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늦춰졌다.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공약의 하나였던 '초고소득세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도 관철시켰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세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22%→25%)은 과표 기준이 3000억원으로 완화된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15회

보성차밭 빛축제

Boseong Green Tea Field Light Festival

2017.12.15. ~ 2018.1.14.

한국차문화공원 | 울포솔밭해수욕장
Korean Tea Culture Park | Yulpo Beach

▶ 개막식

2017.12.15(금) 17시 30분

- 점등식 및 보성판타지 공연

▶ 주요 볼거리

차밭 빛물결, 은하수터널

디지털 차나무 라이팅쇼

가든판타지 공연

파이어 판타지 공연

울포솔밭낭만거리

* 입장료는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드립니다